

금

OVER THE VENTURE

대한민국 벤처 희망1번지, 대덕연구개발특구

글 _ 구본탁 (대덕밸리벤처연합회 회장)

년 7월 말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 이제 대덕밸리는 다시 한번 벤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덕특구의 비전은 세계적인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나는 것인데,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의 중핵 역할을 할 벤처기업들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충분한 의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덕의 벤처기업들에게는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신벤처정책과 함께 이중의 호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대덕에는 특구 전용 벤처펀드가 곧 만들어질 것이고 각종의 특구사업들이 펼쳐질 계획이다. 대덕의 연구소들은 특구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나가면서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조기에 상용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벤처생태계의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경

영과 마케팅을 지원할 각종 전문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국가적인 R&D 역량이 모여 있는 대덕에 사업가적 활기가 불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다. 지금 대덕에는 800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코스닥 기업도 10개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덕의 벤처생태계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 착근되어 있는 벤처캐피탈이 전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자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대덕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이라는 장점이 무색해지는 이유다.

이번의 특구 지정을 통해 대덕은 고질적인 벤처생태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국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에 덧붙여 대덕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집중 육성되어 매력도를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산학연의 강력한 클러스터링이 그것인데,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연구소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 우수한 기술과 인력 등 양질의 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대덕특구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몇 가지 혁신적 기업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IT, BT, NT 등의 기술컨버전스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융복합기술형 기업'이다. 둘째는 기업 간 가치사슬을 연계하는 '통합형 기업'이다. BT로 말하면 대형 바이오제약기업을 예로 들 수 있으며, IT로 말하면 부품을 아웃소싱해서 대규모 시장에 내놓을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로는 타 기업뿐 아니라 연구소나 대학 등 공공부문과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혁신형 기업'이다. 가상기업(virtual enterprise) 이론이 대덕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벤처기업들이 점령해야 할 전략 요충지이다. 대덕에서 우리 벤처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기술혁신과 가치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를 꿈꾸는 많은 벤처기업가들이 대덕특구에 몰려오기를 기대해 본다.